우암학원 창학 71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70 SINCE 1952

RADIANT XROSSOVER NEW GENERATION RX 발견하라, 감동하라
www.hyosunglexus.com
LEXUS
광주전시장 080-384-7733
전주전시장 080-263-7743

1952년 4월 20일 창사 제21731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3월 6일 2022년 4월 6일 수요일

민주 광주시장 후보 李·姜 불붙은 공약 대결

〈이용섭·강기정〉

이용섭 후보

강기정 후보

이용섭, 민선 7기 성과 바탕 중단 없는 광주 발전 초점

강기정, 자치구별 특성 맞는 '광주 신 경제지도' 만들기

오는 6월1일 실시되는 광주시장 선거에서 '양강'으로 꼽히는 이용섭·강기정 예비후보가 매주 두 차례 정책 공약을 내놓으며 치열한 정책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두 예비후보는 광주의 미래먹거리 산업 유치 등을 통한 경제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경제 관련 공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섭 예비후보는 재선에 도전하는 만큼 민선 7기 자신의 성과로 꼽히는 '광주형일자리'와 인공지능(AI)·미래자동차 사업 등을 비롯,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초광역 그린(Green)-스마트(Smart)-펀(Fun) 시티'의 성공적 마무리에 방점을 두고 있다.

강기정 예비후보는 광주 현안 사업인 기존의 자동차와 인공지능(AI) 산업에 더해 차세대 배터리와 자율주행차, 디지털 정밀의료도시 기반 구축, 창업·생태계 조성 등을 통한 '광주 신경제 지도' 추진을 주요 경제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우선 이용섭 예비후보는 5일 첫 정책 발표를 시작으로 매주 두 차례씩 '릴레이 정책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형 일자리 시즌 2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형 일자리 시즌 2'는 미래 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광주형 일자리'의 결실인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있는 빛그린 산단에 미래 차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해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3대 미래산업인 미래 차, 인공지능, 바이오헬스를 집중 육성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최첨단 산업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첨단 3지구에 조성 중인 국가 AI 데이터센터와 함께 국가 AI 데이터 융합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인공지능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AI 반도체 특화단지를 조성해 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오송·대구를 '3대 의료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호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구축하고,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기독병원을 삼각 축으로 한 '의료산업특화단지' 조성도 공약했다. 이 예비후보는 "'더 크고 더 강한 광주'를 완성해 수도권 블랙홀을 막아내고 광주 중심의 글로컬 시대를 열겠다"며 "중단 없는 광주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의 연속성과 정책의 일관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재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예비후보 측은 '광주형 일자리 시즌 2'의 성공을 위해 현재 국내 대기업 2곳과 투자협상을 진행중이며, 중앙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기업 유치를 위해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기정 예비후보도 매주 두 차례 정책 공약 발표를 이어가는 등 정책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 예비후보는 우선 민선 7기 광주시의 역점사업인 자동차와 AI(인공지능)산업의 엔진인 차세대 배터리산업을 광주시의 새로운 산업엔진으로 키워가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모든 미래 산업의 심장이 배터리인 만큼 광주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전·한전공대·에너지밸리 등을 연계한 차세대 배터리 국가전략기지를 조성해 에너지 수도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강 예비후보는 남구에 배터리 산업을 비롯해 ▲광산구에 자율주행차 ▲북구에 반도체·데이터 ▲동구에 디지털 정밀 의료 ▲서구에 MICE(기업 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등 5개 신산업지구 조성 공약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그는 또 '창업 지원·투자를 위한 5000억원 펀드 조성'도 경제 공약으로 내놓고, 5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창업과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갖는 등 정책 실현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밖에 강 예비후보는 앞으로 차세대 의료관광 도시 조성, 스타트업 밸리 조성 등 글로벌 창업 도시 구축 등의 경제 관련 공약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두 예비후보 모두 중앙정치 경험을 했고, 각각 중앙부처와 청와대 등에서 근무했던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만큼 지역이 잘 살기 위해서는 경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새로운 경제 관련 공약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거리두기 완화 … 점심시간 풍경 코로나 19 감염증과 관련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일부 기업들의 재택근무가 해제되는 등 근무지로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5일 오후 점심을 먹으려는 직장인들이 광주 북구청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고리2호기 수명 연장 추진 한빛 1·2호기 연장 불보듯

탈원전 정책 폐기 본격화

한국수력원자력이 내년 4월 설계 수명 만료를 앞둔 부산 고리 2호기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계속운전안전성평가 보고서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약한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에 맞춰 수명 만료를 앞둔 국내 원전의 가동 연장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관련기사 6면〉

이에 따라 2025년 8월 한빛원전 1호기부터 순차적으로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영광 한빛원전 역시 수명 연장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5일 원안위 등에 따르면 원전 운영사인 한수원은 지난 4일 주기적 안전성 평가, 주요 기기 수명평가,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 등 세가지 서류로 이뤄진 고리 2호기 계속운전안전성평가보고서를 원안위에 제출했다.

고리 2호기의 수명 연장이 받아들여지면 경주 월성 1호기(2015년 연장 결정 후 2019년 조기 폐쇄 결정)에 이은 두번째 수명 연장 사례가 된다. 국내 첫 상업 원전인 고리 1호기는 2017년 6월 설계 수명을 마치고 영구정지(폐쇄)됐다.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은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으로 예기된 수순이었다. 당선인이 공약한 2030년까지 수명 만료가 예정된 국내 원전은 한빛원전 1, 2호기(2025년 12월, 2026년 8월) 등 전국에 걸쳐 10기에 이른다.

/김형호·정병호 기자 khh@kwangju.co.kr

인수위, 110개 국정과제·580개 실천과제 압축 광주·전남 핵심 사업 반영 지역 정관계 노력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총 110여개의 국정 과제와 580여개의 실천 과제를 압축, 선별 작업에 나서고 있어 광주·전남 핵심 현안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정관계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5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며 "분과별로 국정 과제들이 취합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중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들에 대한 선별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어 "선거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공약이 국정 과제에 제대로 반영되는 일을 다시 한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당시 지역 공약은 물론 민주당의 공약까지 포함한 지역 현안 사업들이 국정 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현안 사업들이 초기에 국정 과제에 포함되지 못한다면 다시 반영되기 어려워 윤석열 정부 내내 표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윤 당선인 진영에 호남 인맥이 제한적인데다 각 단체장들이 지방선거에 나서면서 지역 현안을 챙길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의 보다 유기적인 공조가 요구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 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정 과제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라며 "인수위와 정부 부처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8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